

불교계 근대문화재 등록 움직임 본격화

조계종 문화부, 공주 신원사 등 3건 지정 추진

한국불교에 산재된 근대 문화유산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는 공주 신원사 소림원 불입상, 공주 원효사 아미타 후불탱, 진주 의곡사 괘불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등록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다. 본래는 건축물,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진돼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의복, 한글연구자료, 잡지·신문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번에 조계종 문화부가 등록 문화재로 추진하는 3건의 성보들도 근대 미술 사조가 반영된 예술작품이다. 공주 신원사 소림원 불입상은 한국 최초 서양 조각가인 김복진(1901~1940)의 작품으로 그는 금산사 미륵전 대불과 범주사 대불도 조성한 바 있다.

공주 원효사 아미타 후불탱은 한국 원로 서양화가 오지호(1905~1982)가 조성했다. 오지 호는 인상파 계열의 한국 현대화를 완성한 인물로 그가 조성한 불교 탱화로는

공주 원효사의 탱화가 유일하다.

진주 의곡사 괘불도 전통과 근대 형식이 조화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곡사의 괘불은 월북 동양화가 정종여(1914~1984)가 조성했으며, 정 화백은 해인사 등지에서 불교 공부를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 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는 지난 6월부터 '등록 문화재 제도 분석 및

근대 화가 불교 작품 위주 올해 안 문화재 등록 목표 목록화·연구 사업도 추진

근대문화재 목록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부는 현행 등록문화재의 제도를 분석하고 전국 사찰에 소장된 동산분야 근대문화재 1만여 점을 목록화 했다.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하는 등록 문화재 지정 사업은 그간 소홀했던 근대 조성 성보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천주교, 개신교에 치중된 등록문화재를 불교계로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 중 하나다.

실제 폭 넓은 불교계 근대 유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이 최근 발간한 <근현대 시기 의생활분야 유물 목록화 보고서>에서도 성철 스님이 40년 간 스님이 직접 기워 입은 무명으로 만든 솜베 두루마기와 고무신과 덧버선, 율사 자운 스님의 승복이 목록에 올랐다. 당대 고승들의 의복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한 스님들의 수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의복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 시기 의생활분야의 중요 유물은 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하고, 현대 시기의 유물은 앞으로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예비문화재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근대는 현대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문화재청도 등록문화재를 기존 건축물에서 예술작품, 의복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불교 역시 근대에 조성된 문화재급 성보와 문화 자료들이 많은 만큼 이를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단에서 동산 분야만 조사를 했으나 추후 부동산 분야까지 조사·목록화해 중요 근대문화유산은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11월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비구 대덕 및 비구니 혜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새로운 가사를 수하고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요익중생과 사회구제에 헌신할 것을 서원했다.

“초발심 잊지 않습니다”

조계종 2, 3급 법계 품서식… 요익중생 서원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대덕·혜덕(2급) 법계와 중덕·정덕 법계(3급) 품서식을 11월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2급 법계를 받은 비구 52명 비구니 37명 등 총 89명의 스님들은 정덕 법계(3급) 품서식을 11월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출가 후 20여년 동안 불퇴전의 마음으로 정진한 그대들의 공부가 한국불교의 역량”이라며 “처음 발심할 때의 마음을 다시 오롯이 새겨 종단의 수행법인 간화선의 선풍을 널리 펼

치라”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에서 “20여 년 전 부처님 말씀에 감동하며 세갓던 생생한 초심을 잊지 말라”며 “종단의 중심이자 변화의 핵심으로 한국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후 1시에는 3급 고시 합격자인 중덕·정덕 법계품서식도 열렸으며 509명이 법계를 받았다.

글=신종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승만부인처럼 당당한 여성불자 되길”

불교여성개발원, 승만보살 10대원 1000일 정진 회향

승만부인처럼 당당한 여성불자가 되길 서원하는 승만보살 10대원 독송 정진이 1000일을 맞았다.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산하 승만경연구회는 12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승만보살 10대원 정진 1000일 회향 수계식 및 승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계사로 나선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오늘은 수행 1000일을 회향하는 뜻 깊은 날이다. 그동안 자신의 수행정진을 되돌아보며

수행발심의 새 뜻을 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8년 <승만경>을 소의경전으로 채택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승만경>을 공부하는 승만경연구회를 만들었다. 이후 ‘승만보살 10대원’을 수계 독송하고 실천하기로 하고 2010년 2월 ‘승만보살 10대원 정진’을 시작했다. 회원들에게 10대원 카드를 나눠 주고 매일 10대원을 독송하게 했다. 지금까지 승만경 강좌를 정기적으

로 실시해 6기까지 배출했으며 수료생은 108명에 이른다.

한편 이날 승만경 강좌 2-6기를 모두 수료하고 1000일 동안 빠짐없이 승만보살 10대원 독송을 해온 권화순(58) 씨가 호계증을 받았다.

권 씨는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 생활에서 10대원의 삶을 실천하려 했다”며 “1000일 동안 수행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됐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갓바위 연등설치 불법 아니다”

경산시가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를 지시했던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내 연등에 대해 문화재청이 공식적으로 ‘문제없음’이라고 판정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내 임시시설물과 관련하여 총무원 문화부의 질의에 대해 11월 19일 “선본사의 종교활동을 위한 임시 가설물(연등설치)은 고정시설물이 아니며, 따라서 허가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문화재청은 회신 공문을 통해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연례적 불교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물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재청은 “고정시설물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일 기자

현대불교 지사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모집 지역 (세부지역은 별도협의)

- 부산 : 부산지역 일원
- 충청 : 충청남북도 일원
- 제주도 전지역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수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 제출기한 :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제출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 관리자 · 서춘건 부장
전 화 : 02)2004-8214 팩 스 : 02)737-0698
이메일 : cgseo@hyunbul.com

916호 INDEX

종합 2·3
불교언론문화상 20주년
한마음선원 어린이 저널 창간
금강경 독송회 16년간 보시

시방세계 5
서용 스님의 ‘참사랑 운동’



신행 6
변화의 중심 전등사 ② 신행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17
前 포교원장 혜충 스님

알림

본사 이재진 부산지사는
2012년 11월 13일부로 계약해지
되었음을 알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찬덕불교의 연등이 새로워집니다.
찬덕불교는 우리 전통을 이어 온 아름다운 등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연등 변화의 새로운 바람을 선도하겠습니다.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찬덕불교 대표 김기찬 합장